수원상공회의소·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사회 나눔을 위한 자선골프대회 개최

김인종 기자 | 승인 2026.10.30 12:58

지역 기업인 100여명 참가, 기업 간 교류와 화합의 장 마련
자선기금 1,200만 원 수원특례시 공유냉장고에 전달, 지역사회 나눔 실천
김재옥 회장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



김재옥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정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2026 수원 기업인 사랑나눔 친선골프에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수원상공회의소(회장 김재옥, 이하 수원상의)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정인)은 10월 29일 88CC에서 지역 기업인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골프를 통해 지역 기업인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옥 수원상의 회장과 정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최현주 수원특례시 첨단산업AI국장, 박종환 수원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 기업인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골프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기업 경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자선기금 1,200만 원을 수원특례시 공유냉장고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원특례시 공유냉장고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식료품 등을 기부하고 필요한 이웃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지역사회 나눔 사업으로, 이번 기부금은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지역 기업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상공회의소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인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인종 기자 snakorea.rc@gmail.com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